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전을 2대9로 패한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팬들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女배구 IBK도 日감독 모시기

올림픽 銅 이끈 마나베 선임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알토스가 일본 여자배구를 올림픽 메달로 이끌었던 마나베 마사요시

(63·사진) 전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IBK기업은행 구단은 21일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마나베 감독을 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나베 선임 감독은 일본 여자배구를 28년 만에 올림픽 시상대로 이끈 세계적인 명장이다.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을 시작으로 2012 런던 올림픽 준결승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세트 점수 3-0 승리를 거두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팀을 5위에 올려놓으며 탁월한 지도력을 입증했다.

지난 시즌 여자배구에서는 중국 생명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이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팀을 '볼배구'로 이끌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나베 감독의 핵심 철학은 '데이터 배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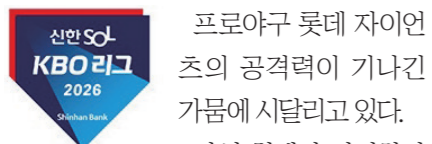
모든 경기를 철저히 분석해 상대 팀의 공격 패턴, 수비 위치, 세트의 토스 상황까지 수치화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경기 중 실시간으로 전술을 수정하는 '라이브 애널리틱스'를 도입해 배구계에 혁신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수별 점프력, 스파이크 각도, 리시브 성공률 등을 정밀하게 측정해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 과학적인 접근 방식도 돋보인다. 반복 훈련을 넘어선 세밀한 전략으로 선수 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이 같은 지도 방식은 일본 대표팀이 불리한 신체 조건을 조직력과 기술로 극복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원동력이 됐다.

안 터지는 방망이... 롯데 '속만 터지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력이 기나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선 침체가 장기화하며 각종 타격 지표가 리그 바닥을 맴도는 가운데, 벤치의 라인업 구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 성공률이 100%라는 '인디언 기우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처절하다.

타선 침묵 속에 롯데의 성적은 6승 12패, 승률 0.333으로 9위까지 처졌다. 최근 롯데의 타석에서는 득점을 기대할 만한 짜임새를 찾아보기 어렵다.

팀 타율, 출루율, 장타율 등 타선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대부분이 리그 꼴찌에 가깝다. 팀 타율 8위(0.248), OPS 9위(0.694), 경기당 평균 득점 10위(3.11)의 지표가 말해준다.

팀 홈런은 17개로 3위지만, 그런데도 득점 가뭄에 시달리는 현실은 어쩌나 나오

팀 타율·출루율·장타율 꼴찌권 득점권 주자 나가도 타선 침묵 점수 가뭄에 애먼 필승조 혹사

는 홈런 아니면 점수를 내기 어려운 롯데 타선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노출한다.

롯데의 팀 출루율은 0.311로 리그 9위이며, 팀 볼넷은 54개로 최하위다.

어렵사리 출루해도 주루사 1위(10개), 병살타 4위(15개) 등 허무하게 주자가 아웃되기 일쑤이며, 득점권 타율은 0.177로 이 또한 10개 구단 중 가장 낮다.

쉽게 말해 기회를 만들기도 어렵고, 득점권에 주자가 나가도 홈에 돌아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 그 여파는 투수진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점수가 안 나니 앞서고 있는 경기도 필승

도박 4인방 빠져 전력 치명타 상위·중심타선 이을 고리 빠져 징계해제 12경기 남아 한숨만

조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투수진의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령탑의 고민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은 매 경기 '울며 겨자 먹기'로 라인업을 짰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며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타격감이 바닥을 친 타자 중 오늘 누군가 한 명은 요행히 터져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타순을 조합하는 셈이다.

실제로 올 시즌 롯데는 18경기에서 17개의 선발 라인업을 썼다. 전날 경기와 같은 라인업은 딱 한 번뿐이었다.

상대 투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맞춤형 타순이나 유기적인 작전 수행보다는 막연한 타격 사이클 반복에만 의존한 것이다.

이처럼 롯데 타선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대만 동계훈련지에서 도박장에 출입했다가 적발된 '4인방'이다.

주전 1루수 나승엽, 주전 2루수 고승민을 빼고 선발 라인업을 짜다 보니 안 그래도 허약한 타선이 더욱 득점 가뭄에 시달리는 것이다.

나승엽과 고승민은 롯데 타선을 이끌어 갈 현재이자 미래였다.

고승민의 정교한 타격과 해결 능력, 나승엽의 부드러운 스윙과 펀치력은 롯데 타선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확실한 무기였다.

하지만 이들이 한꺼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롯데는 상위 타선과 중심 타선을 이어줄 연결 고리를 잃

어버렸다. 이들의 이탈은 단순히 라인업 두 자리의 공백으로 끝나지 않았다.

주축 타자가 사라지자 상대 투수들은 롯데 타선을 상대할 때 쉬어갈 틈이 많아졌고, 이는 남아있는 타자들을 향한 집중 견제와 부담감 가중으로 이어졌다.

적발 당시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던 나승엽과 고승민, 내야수 김세민은 이제 징계 해제까지 12경기가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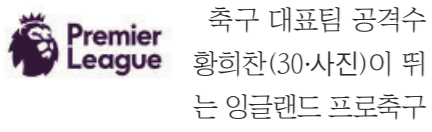
여러 번 출몰한 것으로 드러나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외야수 김동혁은 팀이 32경기를 더 치러야 복귀할 수 있다.

징계가 끝난다고 해도 이들이 곧바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우제는 언젠가 비가 내리면 끝이 나지만, 야구는 요행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롯데는 '타격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야구 격언을 등대로 삼아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글·사진·연합뉴스

팀 2부 강등... 황희찬 어쩌나



축구 대표팀 공격수 황희찬(30·사진)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프턴이 시즌 종료까지 5경기를 남기고 일찌감치 2부 강등의 고배를 마셨다.

울버햄프턴은 21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13위 크리스털 팰리스와 17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2025-2026 EPL 33라운드 맞대결이 0-0으로 끝나면서 다음 시즌 2부 강등이 확정됐다.

18일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0-3으로 패하면서 3승 8무 22패(승점 17)로 꼴찌에 머문 울버햄프턴은 1부 잔류의 마지막 노선인 17위 웨스트햄(승점 33)과 승점 차가 16으로 벌어져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겨도 강등권(18~20위)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울버햄프턴은 2017-2018 챔피언십(2부) 우승으로 EPL 승격을 맞본 이후 8시즌 동안 1부 무대에서 머무르다 2026-2027시즌부터 2부로 추락하게 됐다.

울버햄프턴은 이번 시즌 개막 19경기(3무 16패) 동안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최악

의 전반기를 보냈고, 33라운드까지 단 3승만 거두는 비참한 시즌을 맞으며 결국 2부로 밀려났다.

올 시즌 첫 번째 강등 팀이 결정되면서 17위 웨스트햄과 승점 2차인 18위 토트넘(승점 31), 승점 13차인 19위 번리(승점 20)의 강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울버햄프턴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한 황희찬의 거취 역시 팬들의 관심사다.

2021-2022시즌 임대로 처음 울버햄프턴 유니폼을 입은 황희찬은 2022년 7월 완전 이적을 통해 2026년까지 계약했다.

울버햄프턴 8시즌 만에 추락 한국 프리미어리그 전멸 위기

이후 2023년 12월에 기존 계약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2023-2024시즌 EPL에선 12골을 몰아치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로 찍었던 황희찬은 이후 잦은 부상 등에 시달리며 지난 시즌에는 2골, 이번 시즌에도 2골에 그친 상태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공식 전 27경기를 뛰며 3골(EPL 22경기 2골·FA컵 2경기 1골·리그컵 3경기 0골)만 터트렸다.



治 人 治 世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황중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중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중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